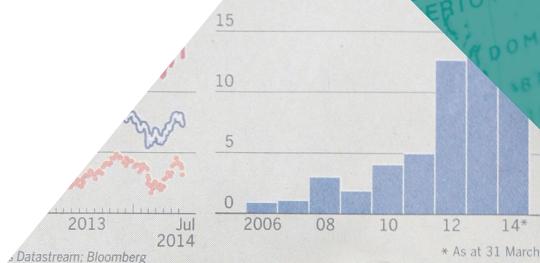


Jun
2020

Hana Market Monthly

▶ 연구위원 서정훈
02. 729. 0195 / seojh@hanafn.com



o facts might tempt a investor to hang in with by buying Rosneft's shares. d and a fourth fact: these es trade below book val two times Rosneft's in and gas reserves (Exxon 17 times). About \$14bn is coming due this year, \$1 next. Rosneft may pay it continuing to sell its oil - dollars. Sanctions still allow access to US dollar clearing.

the maker of *Come Dine* ay that it is an attractive move. ion is not the biggest JPMorgan estimates account for 24 percent of this year. But Liberty, best s an owner and controls

the balance of ITV in the next six months but it could come back late. Yes, there are financial constraints the rest of ITV would cost £7.4bn at today's price and Nomura estimates that by the end of 2014 Liberty's net debt will be a hefty 5 times earnings before interest, tax, depreciation,

Jun
2020

목 차

- 금리 ----- 03
- 달러/원 환율 ----- 05
- 엔/원 환율, 유로/원 환율 ----- 07



본 자료는 현 경제상황의 이해를 돋기 위해 작성된 기초자료입니다. 따라서 투자 권유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. 본 자료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근거해서 작성된 것이나 정확성 등을 보증한 것은 아니며, 자료에 나타난 의견이나 전망치는 향후 예고 없이 당행의 판단으로 수시 변경 될 수 있습니다. 본 자료는 당행의 저작물이며 사전의 승인 없이 본 자료의 전체 혹은 일부를 인용하거나 복제하여 사용하는 것을 금합니다.



These two facts might tempt a
investor to hang in with
by buying Rosneft's shares.
d and a fourth fact: these
trade below book value
times Rosneft's in
is reserves (Exxon
es). About \$14bn is
due this year, \$1
Rosneft may pay it
ing to sell its oil --
. Sanctions still allow
to US dollar clearing.

ance of ITV in the next six
but it could come back later
ere are financial constraints
of ITV would cost £7.4bn at
the end of 2014 Liberty's net
ll be a hefty 5 times earnings
terest, tax depreciation and
ation. But without a bigger
liberty will be a watcher of
content, rather than a
ant in it

rofit schools
g is business in the US.
trill dollars is spent each
on secondary education.
ness of listed, for-profit,
ry schools is not so hot.
the class in this niche is
n Colleges, which is selling
ng nearly all its campuses
g sanctions from the
ent of Education.
epartment has been cracking
for-profits following a 2012
sional review that found half
nts drop out and one-fifth



금 리

**5월
동향** 코로나 관련 미-중 무역분쟁 재격화 조짐, 국내외 경기 장기침체 우려 속
국내 금리인하 영향 등으로 하락

초반, 국내외 완화적 통화정책 기대 속에 미-중 간 긴장 고조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강화 등으로 하락

- 월초, 코로나 관련 미-중 갈등이 무역분쟁 재격화로 확대되는 양상 속 한은 금리 인하 기대와 연준에 대한 마이너스 금리 이슈 등으로 하락 출발
 - 5월 초반, 코로나 책임 소재 관련한 미-중간 관계 악화가 무역분쟁 재격화 조짐으로 번짐에 따라 국고채금리는 하방 압력을 받으며 출발
 - 여기에 경제 불확실성 증대에 따라 시장에서의 한은 추가 금리인하 기대감 확대와 연준에 대한 마이너스 금리 이슈가 증폭한 점도 금리 하락 요인으로 작용

중반, 연준의 부정적 (-)금리 인식, 백신 기대 등 상승 요인과 미-중 긴장 등 하방 요인 혼재 속에 등락

- 중반, 연준 주요 인사들의 (-)금리에 대한 부정적 견해와 백신 기대감 등이 상승 전환 요인이었으나, 하방 요인 상존 등으로 전반적 등락 시현
 - 5월 중반, 연준 (-)금리에 주요 연준위원들의 부정적 견해 개진으로 미국채 금리 상승에 국고채금리도 연동했으나, 미-중 무역분쟁 이슈 지속 등이 상단 제한
 - 또한 코로나 백신에 대한 소식 등도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으나, 금통위가 다가오며 금리인하 기대가 커지면서 하락 전환하며 전반적인 등락세 시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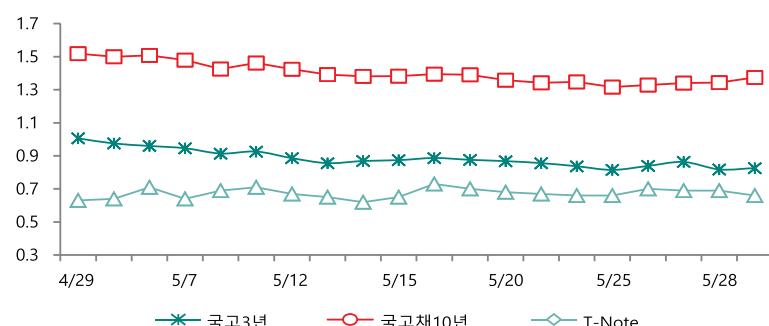
후반, 국내 금리인하 영향 속 경기 불확실성 지속 등으로 하방 압력 이어지는 가운데 소폭 상승 전환 마감

- 5월 후반, 국내 수출 감소세 속 KDI 금리인하 권고 등으로 하락세 이어지다 금통위 이후 양적완화 언급이 시장 기대에 못 미치며 상승 전환 마감
 - 후반, 5월 수출이 전년동월 대비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경기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KDI 금리인하 권고 등이 반영되며 하락 추세 이어지는 양상
 - 이후, 금리인하 기대 반영 속 하락세 이어지다 금통위 금리인하 이후 차익실현 니즈, 시장 기대에 못미친 양적완화 언급 등으로 상승 전환하며 마감

5월 평균

국고채(3년): 0.88%
국고채(10년): 1.39%
T-Note(10년): 0.67%

주요 시장금리 추이



자료: 연합인포맥스

**6월
전망**

주요국 경제 재개 움직임에도 국내외 경기의 장기 불확실성 우려가 여전한 가운데 미-중 긴장 고조 가능성 등이 금리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

평균	2020. 1Q	2020.2Q ^F	2020.3Q ^F	2020. 4Q ^F
국고채(3y, %)	1.09	0.90	0.85	0.80

- 유럽, 일본 등에서의 코로나 관련 경기 부양책 등에 따른 주요국들 경제 재개 움직임이 위험선호 영향을 확대하며 금리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
 - 유럽과 일본에서의 코로나 관련 경기 부양 속에 주요국 경제 재개 움직임 등이 위험 선호 요인으로 작용하며 국내외 국채금리 상승에 영향을 미칠 전망
 - 반면, 코로나 확산세가 신흥국에서 여전히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 잠재적 위기 요인이라는 측면이 금리 상승을 제한할 것으로 판단
- 홍콩 및 코로나 이슈에 따른 미-중 긴장 고조 가능성과 연준의장의 미국경제의 장기침체 언급에 따른 추가 완화 정책 가능성 등이 대외적 금리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
 - 전월 후반의 홍콩 보안법 관련 이슈 영향 확대 시 미-중 긴장이 재고조 될 수 있다는 점이 해당 이슈 부각 시점에서 안전자산 선호 강화에 영향을 미칠 전망
 - 여기에 연준의장의 코로나 영향이 장기침체를 불러올 수 있다고 언급한 상황에서 2분기 주요국들의 큰 폭 역성장 가능성 등도 위험투자에 대한 심리를 약화시킬 요인으로 보임
- 국내 역성장 및 0%대 물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경기 불확실성 지속으로 인한 추가 금리인하 기대가 대내적 국고채 금리 하방 압력을 높일 전망
 - 5월 소비자물가 지표가 -0.3%를 기록한 가운데 국내 연간 성장의 역성장 및 0%대 물가 전망이 탄력을 받는 상황에서 경기 불확실성 지속에 따른 추가 금리인하 기대 등이 국고채 금리의 하방 압력을 높일 것으로 예상
 - 반면, 수급적으로 3차 추경에 따른 채권시장 공급물량 확대가 국내 경기 불확실성 요인을 일부 상쇄하며 국고채금리 하단을 지지할 것으로 보임

상승 요인	하락 요인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유럽, 일본 등에서의 경기 부양 · 주요국들 경제 재개 움직임 지속하는 가운데 백신 개발 기대감 등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미-중 긴장 고조 재부각 가능성 · 글로벌 경제의 장기 침체 우려 · 국내 경기 불확실성 지속에 따른 추가 금리인하 기대

주요국 경기부양과 함께 경제 재개가 확대되는 양상이 위험선호 주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

미-중 긴장 국면 지속이 예상되는 가운데 연준의 추가적인 완화정책에 대한 시장 기대 등이 국내외 금리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

6월 국고채(3년) 금리는 0.75%~0.95% 예상



달러/원 환율

5월 동향 백신 소식과 주요국 경제 재개 기대감에도 국내 성장 전망 하향 및 홍콩 관련 미-중 대치 국면에 따른 위험회피 강화로 상승

월 초, 코로나 발원 관련 미-중간 무역 갈등 재개 영향 반영하다 이후, 중국 경기지표 선방과 무역갈등 관련 대화 기대 등으로 하락

중반 미-중 무역 분쟁 재확산 조짐과 연준의장의 장기 침체 불안 등 위험회피 요인 강화되며 백신 개발 기대에 하락 전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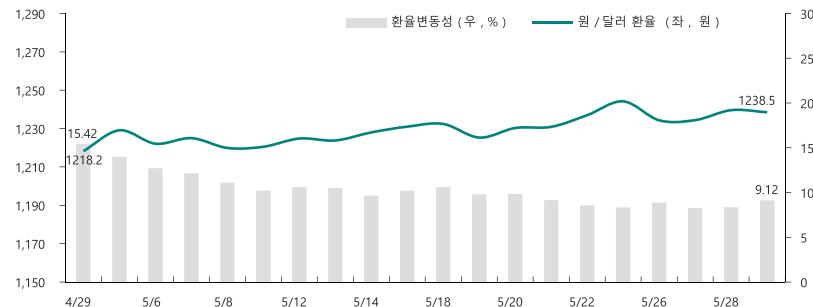
후반, 국내 경제 상황 부진 이슈 속에 대외적 홍콩 관련 미-중 긴장 이어지며 1,230원대 고착화하는 양상 시현

- 월 초, 코로나 발원을 둘러싼 미-중 갈등이 무역분쟁 재점화로 격화 양상을 보였으나, 중국 수출 선방과 미-중 대화 가능성 등으로 하락 추세 출발
 - 5월 초, 코로나 발원을 둘러싼 미-중 갈등이 무역 갈등 재개 영향으로 번지는 양상 속에 국내 중시 외국인 이탈 등과 맞물리며 큰 폭 상승 출발
 - 이후, 중국 수출지표 선방 속에 미 국무장관의 중국과의 대화 가능성 언급 등으로 무역 갈등 완화 기대감이 커지는 가운데 아시아 중시 상승 등의 영향으로 하락 전환
- 중반, 미국 고용지표 선방에도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미-중 책임론과 연준의장 경기침체 발언으로 상승 추세 전환하다 백신 개발 기대감에 큰 폭 반락 시현
 - 중반, 미국 고용지표가 시장 예상을 상회하는 선방에도 한국과 중국 코로나 재확산 속에 이에 대한 책임론이 미-중 무역 갈등으로 재차 번지며 위험회피 강화 양상
 - 이어 연준의장의 장기 침체 가능성 언급 이후 글로벌 증시가 요동치며 위험회피 강화되며 백신 개발 기대가 확대되며 안전자산 선호 약화되는 모습 속 하락 시현
- 5월 후반, 국내 수출 부진, 한은 마이너스 경제 전망 속 홍콩 보안법 관련 미-중 갈등 양상 지속 등에 의한 위안화 절하 영향으로 1,230원대 고착하는 양상
 - 5월 후반, 국내 수출 부진과 한은의 2020년 -0.2% 수정 전망에 원화 약세 심화되며 1,230원대 고착화하는 모습을 보임
 - 이후 백신 소식과 주요국 경제 재개 움직임에 위험선호 일시 나타났으나, 홍콩 관련 미-중 긴장 고조와 이에 따른 위안화 절하 등으로 원화 약세 이어지며 환율은 전월보다 20.3원 상승한 1,238.5원으로 마감

5월 달러/원 평균환율
: 1,230.6원

5월말 달러/원 환율
: 1,238.5원

달러/원 환율 추이 및 환율 변동성



자료: 연합인포맥스, 하나은행

6월 전망

코로나 확산이 다소 진정세를 보이는 분위기이나 홍콩 관련 이슈와 국내성장 약화 전망 등이 원화 약세에 영향 미칠 전망

평균	2020. 1Q	2020. 2Q ^F	2020. 3Q ^F	2020. 4Q ^F
달러/원 환율(원)	1,195	1,240	1,250	1,270

- 코로나 확산세가 주요국에서 다소 진정되는 가운데 경제 재개 기대감 등이 시장의 풍부한 달러 유동성을 바탕으로 위험 선호에 영향을 미칠 전망
 - 주요국에서 확산하던 코로나 영향이 다소 진정되는 분위기에서 유럽 재난 복구 기금 통과 가능성과 경제 재개 움직임 등이 위험 선호에 영향을 미칠 전망
 - 여기에 그간 연준이 코로나에 대응하기 위해 공급한 달러 유동성 확대 영향에 의해 뉴욕증시 등이 빠르게 회복하고 있는 점도 위험 선호에 영향을 미칠 전망
- 홍콩보안법 이슈에 따른 미-중 대치는 원화에 약세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속에 중국의 위안화 절하 대응 가능성도 환율 상승요인으로 예상
 - 중국 홍콩보안법 이슈가 미-중간 무역 갈등을 넘어 대치 국면 수준으로 상향되는 분위기가 투자심리를 제약하는 가운데 안전자산 선호를 크게 강화할 것으로 보임
 - 이러한 미국 공세에 중국이 위안화 절하를 강화할 것으로 보임에 따른 원화의 동조 가능성도 원화 약세 요인으로 판단
- 대내적 내수 경기 지지에도, 수출 감소세 이어지는 가운데 2020년 (-)성장 전망에 따른 외자 유출 가능성 등은 환율 상단을 높이게 할 전망
 - 대내적 긴급재난지원금에 의한 내수 경기 지지에도 수출 감소세 지속 등에 따른 실물경기 부진 속에 대외 신인도 약화 등으로 자본 유출이 확대될 수 있다는 측면이 원화 약세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
 - 여기에 한은의 국내 2020년 성장 수정치가 -0.2%의 역성장으로 전망된 점도 전반적인 원화 약세를 지지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임

코로나 영향에 따른 세계 경기 불확실성 지속에도 주요국 확산세 진정 기미 속 경제재개 가능성 등이 위험 선호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

6월 홍콩보안법 이슈에 따른 미-중 대치 확산 국면 가능성이 위험회피 심리를 강화하는 가운데 1,250 원 터치 가능성을 확대할 전망

6월 달러/원 환율 레인저는 1,210원~1,250원

상승 요인	하락 요인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홍콩보안법 관련 미-중 긴장 고조 · 위안화 절하 강화 가능성 · 국내 성장 전망 (-) 수정에 의한 원화 약세 가능성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주요국에서의 코로나 확산 진정 국면 가능성과 경제 재개 움직임



엔/원 환율

6월 전망 현 일본 경제 펀더멘털 상에서 대외적 주요국 경제 재개 기대와 홍콩관련 미-중 긴장 이슈 등이 상충하며 최근 평균가격 중심 등락 예상

달러/엔 평균 환율

: 107.19엔

엔/원 평균 환율

: 1,146.4원

■ **(동향)** 미 경제재개 기대에 따른 달러 강세 반영 출발 후, 세계 경기침체 우려, 백신 기대 등으로 등락 후, 일본 경기부양과 긴급사태 해제 속에 약세 추세 마감

- 월 초, 미-중 무역 갈등 재점화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속 강세 출발 후, 중국 경제 지표 선방, 미 경제 재개 기대에 의한 달러강세 반영되며 약세 전환
- 월 중반, 미-중 무역 갈등 이슈와 연준의장의 장기침체 언급이 안전자산 강화 요인으로 작용하다 백신 개발 기대에 강세 제한되는 양상 시현
- 월 후반, 일본 긴급사태 해제에 따른 경제 활동 기대에도 미-중 긴장 고조에 강세 보인 후 방향성 다소 모호해지며 등락 양상 시현 후 마감
- 미-중 무역갈등 등으로 상승 추세 출발한 엔/원 환율은 1,130~1,150원 등락 보이다 홍콩 이슈와 미-중 긴장 고조 등으로 후반에도 상승 이어가며 마감

엔/원 예상 범위

: 1,135원~1,150원

■ **(달러/엔 전망)** 일본 긴급사태 해제, 경기부양 기대, 주요국 경제 재개 등으로 엔 약세 예상

- 일본 국내외 경제 재개 기대 속에 경기 부양 등으로 약세 흐름 우세할 전망이나 홍콩 관련 미-중 긴장에 따른 영향이 상단 제한할 전망

유로/원 환율

6월 전망 유로존 경기 약세 우려에도 주요국 경제 재개 기대 및 재정 부양 기대 등으로 상승 시도 예상. 반면, 미-중 긴장 고조 등이 강세를 제한할 요인

유로/달러 평균

: 1.0905달러

유로/원 평균

: 1,340.8원

■ **(동향)** 유로화는 미-중 코로나 길등에 따른 달러 강세 반영 출발 후, 약세 등락 보이다 EU 경기부양 기대, 유럽 주요국 경제 재개 기대 등으로 상승 전환 마감

- 월 초, 미-중 코로나 책임론이 무역분쟁으로 심화하며 달러 강세 반영 출발 후, 유로 경기 부진에 약세 이어지다 미 경제 재개 기대 등으로 강세 전환
- 중반, 백신 소식과 유럽 코로나 재확산세 등으로 등락 양상 후, 연준의장 장기침체 언급 후 약세 흐름. 이어 유로존 경기부양 기대에 상승 전환
- 월 후반, 미-중 긴장 고조에 약세 흐름 보이다, 주요국 경제 재개 기대 및 이에 따른 유로증시 호조, EU 재난 복구 예산안 기대 등으로 강세 마감
- 유로/원은 월초부터 미-중 긴장 고조, 국내 역성장 전망에 따른 원화 약세 속 유럽 코로나 진정과 경기부양 기대 등에 따른 유로 강세로 큰 폭 상승

유로/원 예상 범위

: 1,340원~1,385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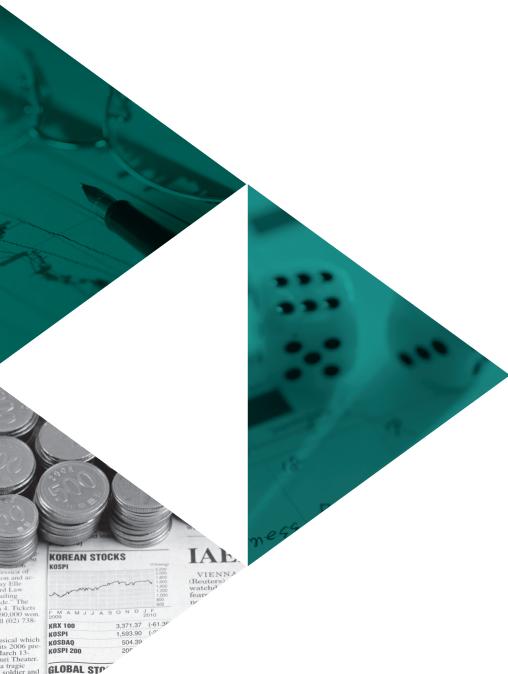
■ **(유로/달러 전망)** 미-중 무역 갈등 요인과 홍콩 이슈 등이 유로 약세 요인이나, 유럽 경제재개 기대와 경기부양 기금 통과 전망 등이 약세 제한하며 소폭 상승 세 보일 전망

- 코로나 확산세가 유럽에서 일부 진정되며 여행 등 경제 활동 재개 가능성과 재난 복구 기금 통과 기대 등이 유로 강세를 견인할 전망. 다만 홍콩 이슈 등 미-중 대치 심화 예상 등은 강세 제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

국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일정(2020.6월)

일 (SUN)	월 (MON)	화 (TUE)	수 (WED)	목 (THU)	금 (FRI)	토 (SAT)	
	1	2 豪 RBA	3	4 ECB 통화정책회의	5	6	
	한 5월 수출/수입 (-24.3%/-15.9% YoY) 5월 무역수지 중 5월 Caixin 제조업 PMI(49.4) 미 5월 ISM 제조업자수(41.5) 5월 ISM 고용(27.5) 5월 ISM 구매물가지수(35.3)	한 1Q GDP QoQ[F](-3%) 5월 CPI(-0.6% MoM/-0.1% YoY) 호 RBA 기준금리(0.25%)	한 5월 외환보유고(\$403.9B) 중 5월 Caixin 서비스PMI(44.4) 5월 Caixin 종합PMI(47.6) 미 5월 ISM 비제조업자수(41.8) 4월 내구재 주문[F] 4월 재조업 수주(-10.3%)	한 4월 BOP 경상수지 상품수지 유 ECB 기준금리(0.00%) 4월 소매판매 (-11.2% MoM, -9.2% YoY) 4월 Market 서비스/종합 PMI[F](28.7/30.5) 미 무역수지(\$-44.4B) 5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5월 실업보험 연속수급 신청자수 1Q 비농업부문 노동생산성[F]	독 4월 공장生수 (-15.6% MoM/-16% YoY) 미 5월 비농업부분 고용자수 변동(-20537K) 5월 실업률(22.8%)	미 4월 소비자신용자수(\$-2044)	
7	8	9 美 FOMC(~10)	10	11	12	13	
	중 5월 외환보유고(\$3,091.4B) 5월 무역수지(\$-45.34B) 5월 수출/수입(-35%/-42% YoY)	독 4월 산업생산 (-9.2% MoM/-1.6% YoY)	일 5월 공작기계 수주[미](-48.3%) 미 4월 도매재고[F]	한 5월 실업률 (3.8%) 중 5월 CPI/PPI(3.3%/-3.1%, YoY) 일 5월 PPI(-1.5% MoM/-2.3% YoY) 4월 핵심기계수주 (-0.4% MoM/-0.7% YoY) 미 5월 CPI(-0.8% MoM/0.3% YoY) 미 FED 기준금리(0.0~0.25%)	미 5월 월간 재정수지(\$-737.9B) 5월 PP(-1.3% MoM/-1.2% YoY) Powell Holds Post-FOMC Press Conference	한 5월 수출물가지수 (-10% MoM/-5.9% YoY) 수입물가지수 (-5.1% MoM/-14.1% YoY) 일 4월 설비기동률(-3.6% MoM) 4월 광공업생산[F] 유 4월 산업생산 (-11.3% MoM, -12.9% YoY) 미 5월 수출/수입물가 (-3.3%/-2.6%, MoM) 5월 수출/수입물가 (-7.0%/-6.8%, YoY)	
14	15 BOJ 통화정책회의(~16)	16	17	18 BOE 통화정책회의	19	20	
	중 5월 광공업생산(3.9% YoY) 5월 소매판매(-7.5% YoY) 미 6월 제조업자수/뉴욕주(-48.5)	한 5월 금통위 의사록 공개 일 BOJ 기준금리(-0.10%) 유 6월 ZEW 서비스 예상(46) 독 5월 CPI[F] 6월 ZEW 서비스 예상(51) 미 4월 기업재고(-0.2%) 5월 설비기동률(6.4%) 5월 광공업생산(-11.2%, MoM)	일 5월 수출/수입(-29%/-72% YoY) 5월 무역수지(-\$930.4B) 유 5월 CPI[F](0.3%, YoY) 4월 건설생산 (-14.1% MoM, -15.4% YoY) 미 5월 주택취득금액(-30.2% MoM) 5월 건축허가(-20.80% MoM)	영 BOE 기준금리(0.10%) 미 6월 필라델피아 연준 경기 전망(-43.1)	일 5월 CPI(0.1%) 독 5월 PP(-0.7% MoM/-1% YoY) 미 1Q 경상수지(\$-109.8B)		
21	22	23	24	25	26	27	
	유 6월 소비자기대지수[A] 미 5월 기준 주택매매(-7.8% MoM) 5월 시카고연방 국가활동 지수(-16.74)	한 5월 PPI(-1.5% YoY) 일 6월 PM 종합/제조업/서비스PMI 유 6월 Market PMI 종합, 제조업, 서비스[P] 독 6월 Market 서비스/종합PMI[F] 미 5월 신규주택매매(0.6% MoM) 6월 Market 제조업/서비스/ 종합PMI[P] 6월 리치몬드 연방 제조업지수(-27)	일 4월 선행지수/동행지수[P] 5월 PPI 서비스(1.0% YoY)	독 7월 GK 소비자 기대지수(-18) 6월 IFO 기업환경지수(79.5) 미 1Q GDP 연간회(00Q) 1Q 개인소비 1Q GDP 물가지수 Fed's Evans Takes Part in Discussion on Economy	한 6월 소비자심리지수		
28	29	30					
	중 5월 산업생산(-4.3%)	유 5월 경기기대지수 미 6월 덜러스 연준 제조업활동(-49.2)	한 7월 기업경기실사 제조업/비제조업 5월 광공업생산 5월 강원/순천청 산행지수 변동 중 6월 종합 제조업 비제조업 PMI 유 6월 CPI				

* 주 : [P]-잠정치, [F]-확정치, [SA]-계절조정, ()안은 이전치



Hana Market Monthly



본 자료에 대한 문의는 하나은행 자금시장영업부 (TEL 729-0190)로 하여 주기시 바랍니다.
또한 본 자료는 하나은행 외환포털 (www.kebhana.com → 외환포털FXKEB → 환율 →
외환시장동향 → 월별금리환율예측자료) 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.